



한국설교학회 2022년 봄

# 정기 학술대회

일시 | 2022년 6월 4일 (토) 10:00-13:00

장소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본관 212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50)

<https://us02web.zoom.us/j/9309414738>

현장 및 Zoom으로 동시 진행  
등록비 무료  
자료집과 점심식사 제공

## 발제 1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구아름 박사**

(Ph.D 토론토대학교)

## 발제 2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과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

**이상규 박사**

(Ph.D 감신대학교)

회장 : 이승진(합동신학대학원)

1선임부회장 : 류원렬(평택대학교), 2선임부회장 : 최진봉(장신대학교)

1부회장 : 오현철(성결대학교), 2부회장 : 박성환(성서대학교)

총무 : 김용성(한신대학교), 부총무 : 유재원(장신대학교)

서기 : 황종석(백석대학교), 부서기 : 이승우(대신대학교)

회계 : 김지혁(총신대학교), 부회계 : 최영현(한일장신대학교)

홍보 : 김대진(코람데오닷컴), 조광현(고신대학교)

감사 : 차장현(부곡장로교회)

편집위원장 : 김병석(송실대학교)

# 차 례

(2022. 6. 4. 토 10시 ~ 13시)

- ◆ 개회사 및 기도
- ◆ 신진학자 소개 및 발제
  1. 설교에서 애통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구아름 박사 / 토론토대학교) ..... 1
  2.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과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  
(이상규 박사 / 감신대) ..... 22
- ◆ 광고
- ◆ 사진촬영
- ◆ 폐회기도

시간	세부 내용
10:00 -10:10	개회사 및 기도
10:10 -10:20	신진학자 소개
Zoom 접속	회의 ID: 930 941 4738 암호: 1234 <a href="https://us02web.zoom.us/j/9309414738?pwd=cHhyWmloTzRwNzIeZW9LdFZ4VWtmQT09">https://us02web.zoom.us/j/9309414738?pwd=cHhyWmloTzRwNzIeZW9LdFZ4VWtmQT09</a>
10:20 -11:15	[발표1] 구아름(토론토대): “설교에서 애통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좌장: 오현철(성결대) 논찬: 조지훈(한세대), 류원렬(평택대)
11:15 -12:10	[발표4] 이상규(감신대):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과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 좌장: 오현철(성결대) 논찬: 김용성(한신대), 김병석(송실대)
-13:00	사진 촬영 및 점심 식사

## ◆ 광고 ◆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설교학회 제34회 학술대회를 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본 행사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김학유 총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은혜감리교회와 서동원 목사님(본 학회 직전 회장), 성남 영화교회, 최월화 권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한국 15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학술지 출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오늘 발제로 수고해 주신 2명의 설교학자 박사님들과 본 행사 및 총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한국설교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시스템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5. 한국설교학회 학술대회는 연 2회 개최됩니다. 다음 학술대회는 2022년 12월 3일(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설교에서 애통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구아름  
(토론토대, 설교학)

### ■ 초록 ■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설교에서 다루어 져야할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복잡함과 신비로움은 회중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석은 복잡하여 단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은 종종 이를 개인적인 것 혹은 죄에 관한 것으로 환원시켜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특별히, 승리자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복음을 하나의 시각으로 전달하고 복합적이고 복잡한 삶의 컨텍스트를 지나치게 일반화 시켜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형 (linear) 의 구조로 선포되는 ‘창조-타락-구속-재창조’의 기독교 거대 서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정당화 하거나 경시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거대 서사는 설교에서 고정된 복음의 틀을 제공하거나 너무 좁은 시각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대 서사는 고통을 표현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은 거대 서사와 맞지 않는 다양한 경험들은 침묵시키고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통의 서사를 메타 서사와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반 서사 (counter-narrative)로 이해하고 이 두 서사를 가르치지 않고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애통을 제시한다. 애통이 설교에서 이중 초점 서사의 형성을 도우면서 어떻게 이 양 극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지 폴 윌슨 (Paul Scott Wilson)의 문제와 은혜(Trouble and Grace) 개념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실천 윤리로서 애통은 침묵 되고 무시되었던 잃어버린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서로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권력 관계가 없는 상호성을 지닌 공동체로서 애통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듣기의 윤리와 환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애통이 고통의 경험과 목소리를 믿음과 기독교 서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주제어: 애통, 환대, 듣기의 윤리, 이중 초점 서사 (Bifocal-Narrative), 문제와 은혜 (Trouble and Grace)

### I. 들어가는 말

고통은 매력적이지 않고, “어디에나 있고, 피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종종 압도적이다.”<sup>1</sup> 많은 학자들은 예전에서 고통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인식이 주는 긴장을 발견한다.<sup>2</sup> 아맹드 오멘(Armand Léon van Ommen)는 그의 연구에서 몇몇의 참여자들이 교회에서 그들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증언한 것을 강조한다.<sup>3</sup> 그는 애통이 반드시 예배의 한 부분이어야 하지만, 예전 안에서 애통의 실천과 고통의 실질적인 상황의 차이는 고통과 예배의 연결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sup>4</sup> 설교의 참여자들은 믿음 안에서 고통을 이해하고 대처하면서도 명확한 희망을 듣기 원하지만, 고통은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기(mysterious) 때문에 회중들 뿐 아니라 설교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 왔다.

고통이 “고통, 곤경,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될 때, “겪고 있는 상태”는 순간과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역동성을 의미한다.<sup>5</sup> 고통은 현재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과거의 사건이거나, 현재의 일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 고통을 느끼는 범위와 상황이 넓고 방대할 뿐 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복잡하고 단일의 렌즈로 고통을 볼 수 없다. 때때로 기독교의 거대 서사인 창조-타락-구원-재창조는 고통의 자리를 쉽게 축소하고 환원시켜 왔다. 이러한 거대 서사에서 쉽게 투영되는 창조자, 전사, 심판자, 그리고 영웅 등의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강조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하게 하고, 고통의 원인을 개인적 혹은 영적으로 축소하고, 고통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하며, 나아가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 강단에서 고통을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이같이 축소된 신학적 접근이나, 고통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나, 약속된 미래와 현재 고통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극의 실재로부터 도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고난의 원인을 분류하고 신학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현실은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식별이 불가능하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시도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역시 인식해야 한다.<sup>6</sup> 이러한 고통의 복잡함과 불편함은

<sup>1</sup> Timothy Keller,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New York, NY: Penguin Books, 2013), 1.

<sup>2</sup> Armand Léon van Ommen, *Suffering in Worship: Anglican Liturgy in Relation to Stories of Suffering People* (New York: Routledge, 2011), 2.

<sup>3</sup> Ibid.

<sup>4</sup> Ibid., 3.

<sup>5</sup> Ibid., 5.

<sup>6</sup> Ji-Ma Seo, “Homiletical Theodicy for Preaching on Suffering,” *Theology and Praxis* 75 (2021), 55. Seo는 설교자가 다양한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신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o의 다양한 신정론과 고통의 분류에 대한 노력 매우 귀중하며 그 분류와 해석에 필요성을 절감 하지만, 이 접근을 이용한 일원화된 적용은 이해할 수 없고 복잡한 고통을 유형화함으로써 그 유형에 기대어 판단하는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Seo 역시 고통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mystery) 라고 말한다. Ibid., 70.

고통을 슬퍼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 슬픔을 빨리 해소하거나 추방하려는 충동, 혹은 슬픔 자체를 회복을 위한 자산으로 만드는 것 등으로 강단에서 나타나 왔다.<sup>7</sup> 그러나 설교자들은 어떤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설교에서 고통을 다루는 것은 이러한 불편함과 긴장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다룰 때 기독교의 서사는 이미 정해진 거대 서사의 틀 안에서 고통의 판단과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표현과 언어가 거대 담론의 증언에 긴장을 만들어 내고, 그 긴장이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적이고 정의로운 관습과 제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서사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긴장을 효과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자 실천하는 방법으로 애통(lament)의 실천을 제시한다. 설교에서 애통의 실천은 우리 삶의 불편한 슬픔의 진리를 직시하고, 표현하고, 침묵과 부정의에 저항 할 뿐만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방식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먼저 기독교 거대 담론과의 관계 에서 애통의 역할에 대해 고찰 하고, 애통이 설교에서 실천되는 방식으로 듣기와 환대의 해석학을 제시한다.

## II. 거대 서사 (Metanarrative) 와 애통 (Lament)

### 1. 설교에서 단일 서사의 위험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된 실천으로 보편화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다.<sup>8</sup>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거대 서사의 기능은 위대한 영웅, 위대한 항해, 위대한 목표 등의 권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 시스템 및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적화 하는 것에 있다.<sup>9</sup> 예수의 죽음에 대한 초대 공동체의 이해가 “유대적 전통의 의인의 고난과 순교자 신학의 모델”이었음을 생각할 때, 기독교 거대 서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루는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환원되어 이해 되거나 종말론적 성향을 질게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sup>10</sup> 기독교 거대 서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면서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재림’의 커다란 틀 안에서 성경적 믿음과 복음을 해석해왔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재진술과 미래에 발생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sup>7</sup> Judith G. Butler,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New York: Verso, 2004), 29-30.

<sup>8</sup>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xxiv.

<sup>9</sup> Ibid.

<sup>10</sup> 윤철호, “구속교리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1 (2012), 156. 이러한 경향은 예레미야 애가의 수용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를 위해 구아름, “고통과 희망 사이의 과도기적 공간으로서의 애통 설교 (Lament-driven Preaching): 설교에서 애통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제8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2), 155-168 을 참고하라.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을 이끌어 내는” 거대 서사 안에서 신앙공동체로써 현재의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찾았다.<sup>11</sup>

거대 서사가 지니는 보편성과 전체성은 다름에 대한 개방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거대 서사에 편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폭력과 억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거대 서사는 보편적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권한을 지닌 사람들의 기득권을 정당화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이야기와 경험이 거대 서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하찮게 만들거나, 주변화 하거나, 혹은 억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래서 이 거대 서사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불평에도 동등한 관심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설교에서 고통을 다루는데 중요하다.<sup>13</sup>

기독교의 신앙을 형성하고 설명하는 거대 서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문화 혹은 공동체의 특수성에 반응하는데 실패한 거대 서사의 작동 방식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동일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언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다루고 회복력을 기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sup>14</sup> 특별히 해석적 일관성과 동일성에 기반한 방식이 설교에서 적용될 때, 고통에 대한 선부른 판단, 비난, 외면, 포기, 타협, 그리고 무지함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상처와 폭력을 줄 수 있다.<sup>15</sup> 또한 고통에서 희망으로 선형 (linear) 으로 전개되는 거대 담론의 구조와 내용은 고통과 부서짐을 정당화 하거나 무시할 수 있고, 이러한 단일적인 그림은 대안적인 다양한 세계관과 공동체들을 무시할 수 있다.<sup>16</sup> 고통의 경험이 하나의 공동체적 서사로 구성될 때 그것은 지배적인 서사가 폭력적으로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선택하고 혹은 왜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설교에서의 이중 초점 서사 (Bifocal-Narrative)

거대 서사에서 그 서사적 행복한 결말을 극복하지 못한 고통의 이야기들이 공동체 안에 들려진다는 것은 긴장을 만든다. 콕필란 (Kwok Pui-lan)은 많은 아시아인들이 기독교 교회에 적대감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 교회가 식민지적 접근의 고통과 아픔을 계속해서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sup>17</sup> 콕은 종교 전통이 사람들에게 공동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서사를 제공할 때, 그러한 공동 정체성에 대한 서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여성의 참여가 거대 서사의 형성과정에서 어떻게 거부되거나 불신임을

<sup>11</sup> 이승진, “설교를 통한 신앙 공동체의 집단 기억 형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4-1 (2010), 148.

<sup>12</sup> J. Richard Middleton and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71.

<sup>13</sup> *Ibid.*, 164-65.

<sup>14</sup> Judith P. Butler,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6-7.

<sup>15</sup>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씨), 230.

<sup>16</sup> Middleton and Walsh, *Truth Is Stranger*, 199.

<sup>17</sup>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43

받았는지에 대해 일깨운다.<sup>18</sup> 이와 관련하여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반서사로서 (counternarrative) 재구성적 (reconstructive) 성경 읽기를 제시한다.<sup>19</sup> 예를 들어, 예수의 고통은 필리핀의 예속된 여성들에게 수동적인 고통과 끝없는 희생과 부정의 삶의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의 고통은 국가 테러나 가정폭력을 인내와 희생으로 용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 사회의 잘못에 맞서고 정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룩하는 것이다.<sup>20</sup> 가야트리 스피박 (Gayatri Chakravorty Spivak) 역시 서사가 서로 경쟁하는 방식-하나가 상승하고, 하나는 추락하고, 누군가는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완벽한 서사를 생성하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의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는 취약성의 표시 (the mark of vulnerability) 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sup>21</sup> 즉, 이는 기독교 거대 담론으로 형성된 정체성이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행위로서 혹은 경계를 만드는 행위로서 ‘다름’의 서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sup>22</sup> 이들의 노력은 설교에서 필요한 서사는 일관된 단일 이념적인 서사가 아니라 침묵되고 억압되고 혹은 무시되어온 서사들이 만드는 긴장을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준다. 월터 브루그만 (Walter Brueggemann)은 고통을 포용하는 것은 구조의 합법화와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하며 이 긴장이 성경적 믿음의 내용이자 인간 경험의 내용이라 주장한다.<sup>23</sup> 따라서 고통의 목소리는 성서 안에서 취약한 소수의 목소리이지만 결정적인 목소리로서 한 구조의 도전 받지 않는 경향의 절대화에 저항하며 그 구조 안에 포함되기를 거절함으로써 거대 담론에 긴장을 만든다.<sup>24</sup> 따라서 설교의 서사는 이중 초점을 지닌다.

## 3. “승리자” 주제와 이중 초점 서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구속 주제 (motives) -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주제- 중에 하나인 ‘승리자’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협하는 주체(agent)와의 대결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이다.<sup>25</sup> 이 주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멸망시키는 권세의 통치를 말살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는

<sup>18</sup> *Ibid.*, 47.

<sup>19</sup> *Ibid.*, 82.

<sup>20</sup> *Ibid.*, 157.

<sup>21</sup>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1990), 31, 27.

<sup>22</sup> Regina M. Schwartz, *The Curse of Cain: The Violent Legacy of Monothe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5.

<sup>23</sup> Walter Brueggemann, “Shape for Old Testament Theology II: Embracing Pain”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7-3 (1985), 399.

<sup>24</sup> *Ibid.*, 399.

<sup>25</sup> Gregory A. Boyd, “Christus Victor View,” in *The Nature of the Atonement*, edit by James Beilby and Paul R. Eddy,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6), 25. 초기 기독교인들과 바울은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했다. *Ibid.*, 25-29.

것으로써,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최후 승리를 제시하면서 기독교적 희망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한다.<sup>26</sup>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궁극적인 최후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분명히 위안이 된다. 또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되며, 고통의 원인을 악의 힘으로 돌림으로 인해 고통의 목적이나 이유를 분별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윌리엄 블레인-월레스(William Blaine-Wallace)가 슬픔에 착수하는 신앙 공동체는 특별히 종교적 담화가 승리에 관한 것일 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승리자” 이미지는 고통가운데 싸우시는 강력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더 큰 어려움을 준다.<sup>28</sup> 또한, 민감한 두 권력 개념의 구분이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악의 방식에 대한 구분을 상쇄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선과 악의 구분에 있어서 모호성과 왜곡된 해석을 가져 올 수 있다. 게다가 ‘승리자’ 주제가 예수님의 우주적 승리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나타난 “종교적 율법주의, 사회적 편견, 성차별주의, 인종적 장벽 등을 포함하는 이 세상의 악”과의 투쟁과 인간 고통에의 실제적 참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구속 서사의 주된 요소가 될 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무게를 약화 시키고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sup>29</sup>

그러나 이 ‘승리자’ 주제를 이중 초점으로 살 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써 그의 십자가와 갯세마네의 애통을 복음의 중요한 부분으로 끌어 올 수 있다. 즉,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은 목시적 투쟁의 예표 일 뿐만 아니라 애도의 모델로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애통은 목시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세상의 고통을 증언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승리의 주 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수동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공포의 제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sup>30</sup> 그러므로 사실상 승리자 하나님의 모티브는 죽음에 이르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고, 고통받는 자의 애통으로 성육화 하여, 불의에 대한 저항과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하나님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추어져”있기 때문이다.<sup>32</sup> 즉, 이

<sup>26</sup> Ibid., 40.

<sup>27</sup> Seo, “Homiletical Theodicy for Preaching on Suffering,” 65.

<sup>28</sup> William Blaine-Wallace, “The Politics of Tears: Lamentation as Justice Making,” in *Injustice and the Care of Souls: Taking Oppression Seriously in Pastoral Care*, eds. Sheryl A. Kujawa-Holbrook and Karen Brown Montagno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9), 196.

<sup>29</sup> 윤철호, “구속교리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1 (2012), 150.

<sup>30</sup>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91.

<sup>31</sup> Fleming Rutledge, *The Crucifixion: Understand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348.

<sup>32</sup> Ibid., 144.

목시적 주제는 현재 문제의 도피처가 아니라 삶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33</sup> 또한 승리자 주제의 이해는 개인주의적인 틀을 넘어서 모든 왜곡된 사회적 구조 악의 차원과 연결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비폭력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방식을 따라 세상의 모든 악에 저항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부름 받는다.”<sup>34</sup>

#### 4. 애통과 이중 초점 서사의 역동성

기독교의 거대 서사가 하나님의 행위와 성품에 대한 핵심 증언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고, 자비롭고, 공의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로 말한다면 이 거대 서사에 긴장을 일으키는 반 서사들은 거대 서사에 질문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써 나타난다. 거대 서사와 반 서사들은 서로 속해있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다.<sup>35</sup> 고통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정당화 하는 것은 전체화 (totalizing) 이며 고통의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 구조가 정당화 되는 곳에는 “연민이 없는 억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서사는 거대 서사의 형태가 아닌 이중 초점의 서사 혹은 다양성의 서사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이러한 측면에서 애통 (Lament) 은 질서라는 이름 아래 일어나는 혼돈을 묵인하기를 거부한다.<sup>37</sup> 애통은 질서의 결핍, 정의의 결핍, 성실의 결여에 대한 심오한 감각에서 비롯되며 살롬의 갱신을 가져오기 위해 역사적으로 개입하기를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청한다.<sup>38</sup> 고통 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 속에서 세상 구조의 악함과 악의 힘에 직면할 때, 성경은 침묵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복귀를 요청하도록 애통의 언어를 허락한다. 뿐만 아니라 애통은 세상의 부정의와 침묵 되고 억압된 고통의 목소리를 공적으로 들려지게 한다. 성경의 애통은 성경의 시대를 초월하여 전쟁, 분열, 기근, 절망, 질병, 폭력 등의 삶의 모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공적인 탄식과, 폭로와, 저항과, 하나님에 대한 긴급한 부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애통의 서사는 고통의 침묵을 깰 만큼 강력하며 고통을 수동적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애통의 언어는 거대 서사에서 나타나는 구원하고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침묵에 맞서 말하고 그 언어는 파괴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 즉, 애통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sup>33</sup> Ibid., 354.

<sup>34</sup> 윤철호, “구속교리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 157.

<sup>35</sup> Walter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7), 317.

<sup>36</sup> Middleton and Walsh, *Truth Is Stranger*, 164; Walter Brueggemann, “Shape for Old Testament Theology II,” 399.

<sup>37</sup> Middleton and Walsh, *Truth Is Stranger*, 165.

<sup>38</sup> Ibid., 165.

고통에 대한 정직한 이야기는 현실적인 희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행동이다.<sup>39</sup> 그래서 애통은 거대 서사에 긴장을 일으키는 반 서사 이자 거대 서사를 품고 있는 다른 형태의 믿음의 고백이며 거대 서사와 반 서사 사이의 경계를 넘어 움직이는 역동성의 공간을 발생 시킬 수 있다.

### III. 설교에서의 이중 초점 개념과 애통

애통을 거대 서사의 흐름에 긴장을 일으키고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반 서사 이자 이 두 극 사이의 역동성이라고 보았을 때, 애통은 적절한 기독교 대안 서사를 인식하게 하고, 누가 지배적인 서사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찰스 캠벨 (Charles Campbell) 과 존 실리어스 (John Cilliers) 는 설교자를 “중단의 대리인 (an agent of interruption)”으로 묘사한다.<sup>40</sup> 이 이미지는 주변부의 목소리를 이야기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십자가의 논증으로 지배적이고 권력 있는 목소리들을 무너뜨린다. 이는 강단 자체의 금기와 경계를 어지럽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sup>41</sup> 즉, 이 긴장은 거대 서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거대 서사가 놓칠 수 있는 인식되지 않은 고통을 듣기 위해 서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루크 파워리 (Luke Powery) 역시 설교는 “슬픈 기쁨 (sad joyfulness)”와 같은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sup>42</sup> 그는 계속해서 “오직 세상에 대한 애통만 있고 사회적 비평만 제공하는 설교는 부활의 영에 근거한 필요한 희망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축하 (celebration) 만 있는 설교는 십자가의 영에 근거한 인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제시 못한다”라고 주장한다.<sup>43</sup>

이러한 극지적 사고 (Polar Thoughts)는 폴 윌슨 (Paul Scott Wilson) 의 신학적/설교적 문법인 문제와 은혜의 틀(frame)에서 집대성 된다.<sup>44</sup> 윌슨은 마틴 루터에서 비롯된 법과 은혜 (Law and Gospel)의 설교적 이해를 기반으로 수직적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고 수평적 (세상의 타락한 상태) 인 차원의 지각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또한, 개인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다. 수직적 (vertical) 문제는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해결된다. 그러나 이는

판단이나 질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실한 선언이다.<sup>45</sup> 수평적 (horizontal) 문제는 하나님의 세상을 전복시키는 힘을 간청하는 “창조물의 타락, 부패한 사회 구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동체적 감각과 관련되어 있다.<sup>46</sup>

이러한 방식의 설교를 선형적 (linear) 구조와 이분법적 이해로 바라보기 쉬우며 거대 서사와 동일한 수사를 가진 구조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윌슨의 문제와 은혜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두개의 축이 이분법적이거나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 극의 정체성을 모두 보존하면서도 그 두 극의 긴장을 통해 믿음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47</sup> 두 극 사이 에는 경계가 없으며 그 둘 사이의 모순처럼 보이는 긴장은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한다.<sup>48</sup> 윌슨의 신학적/설교적 문법에서 문제가 은혜와 공존하는 것은 설교자들이 인간의 죄와 상처를 말하지 않고 은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활의 몸에 새겨진 상흔이 부활로 인해 지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특별히 윌슨은 그의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 2019)의 두번째 개정판에서 애통은 세상의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 설교의 전반부에 어떤 설교를 위해서든지 적합한 형태라고 언급한다.<sup>49</sup>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시편의 애통을 통해서 문제 만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윌슨의 문제와 은혜의 역동성 안에서 애통은 문제와 은혜의 두 극을 넘나 든다.<sup>50</sup> 따라서 윌슨의 극지 개념은 설교에서 애통을 위한 중요한 자리를 증명해 줄 뿐 아니라 거대 서사와 반 서사 간의 관계의 긴장이 애통을 통해 연결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sup>51</sup>

이 긴장이 만드는 역동성은 다양한 서사의 목소리를 포함 할 뿐 아니라 양면성과 역설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의 상태에 설교를 고정 시키지 않는다.<sup>52</sup> 이러한 측면에서 설교자는 하나의 서사에 머물거나 속하지 않고 신학적 혹은 사회적 닫힌 구조적 경계를 넘어서 미래의 결정적인 희망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를 오가는 “경계를 넘는자 (boundary-crossers)”로 활동한다.<sup>53</sup> 그러므로, 설교자는 눈물과 애통으로 거대 서사와 반 서사의 역동성을 창조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삶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 보는 사람들이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래에 대한 확언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kairos) 의 시간이 신과 인간의 애통을 통해

<sup>39</sup> Ellen Davis, “Is It Nothing?” A sermon on Lamentations 1:12 and 3:1-8, 16-24 preached in Duke University Chapel on Good Friday, April 18, 2014.

<sup>40</sup> Charles L. Campbell and Johan H. Cilliers, *Preaching Fools: The Gospel as a Rhetoric of Folly*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2), 154.

<sup>41</sup> *Ibid.*, 157.

<sup>42</sup> Luke A. Powery, *Spirit Speech: Lament and Celebration in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96; Albert Raboteau, *A Sorrowful Joy* (New York: Paulist, 2002), 37.

<sup>43</sup> Powery, *Spirit Speech*, 100.

<sup>44</sup> 자세한 논의들은 Paul Scott Wilson, *Preaching and Homiletical Theory*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4)를 참고하라.

<sup>45</sup>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8), 101, 111-12.

<sup>46</sup> *Ibid.*, 114-17.

<sup>47</sup> Wilson, *The Preaching and Homiletical Theory*, 92.

<sup>48</sup>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23.

<sup>49</sup> *Ibid.*, 139.

<sup>50</sup> *Ibid.*, 88.

<sup>51</sup> Powery, *Spirit Speech*, 93.

<sup>52</sup> Campbell and Cilliers, *Preaching Fools*, 42, 70.

<sup>53</sup> Lewis Hyde, *Trickster Makes This World: Mischief, Myth and Ar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8), 6-7.

서대 서사와 반서사가 역동하는 불안한 공간(unsettling space)에 들어갈 때 현재의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다.

#### IV. 애통의 의미와 실천 윤리

애통이 설교에서 실천될 때, 우리는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 해야 한다: 애통의 해석학이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게 하는지, 애통이 설교를 건인할 때 어떤 수사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애통의 언어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애통들이 설교에서 들려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다. 다양한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거대 서사로부터 침묵 된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서 애통의 의미를 숙고함으로써 애통이 다양한 고통의 목소리를 차별없이 듣기 위한 중요한 실천으로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 1. 애통의 의미

영어 단어 *lament* 에 대한 번역은 애도, 애통, 통곡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lament*를 애통으로 번역하는 것은 애통을 실천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애통’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생각 해 볼 때, “애(哀)”가 지닌 의미는 슬프고, 가없고, 불쌍히 여기는 의미와 더불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다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다. “통”은 중의적 의미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애통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럽게 울다 혹은 대단히 슬퍼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서러워할 통(慟) 혹은 ‘아프다, 애석히 여기다, 번민하다, 고민하다’라는 아플 통(痛)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통”(通, communicate)으로 함께 이해 되어야 한다.<sup>54</sup> 애통은 서럽게 울고 아픔으로 인해 번민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민망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이자 행동이자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애통은 고통을 표현하고 증언하는 ‘말하기’만이 아니라 그 말하기에 응답하는 적극적인 참여로써 ‘듣기’를 포함 해야 하며, 그 상호적 애통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서사를 포함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실천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환대의 윤리 안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이러한 듣기와 환대의 실천은 ‘받아들여짐’의

<sup>54</sup> 이덕주는 통성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연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 고통과 한을 안고 살던 사람들의 기도라고 언급한다.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 교회 형성과 종교문화 - 토착화신학에 대한 역사 신학적 접근,”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8 (2005), 57-58; 김명실 역시 이러한 이덕주의 해석을 받아 들어서 통성기도에서 “통”의 의미를 두 가지 모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통의” 혹은 “공동 사회의”라는 뜻으로서의 통(通)과 “아픈,” “비애의,” 혹은 “번민의” 등의 의미를 가진 통(痛). 김명실, “공동체적 탄원기도로서의 통성 기도: 통성 기도의 정체성의 정립과 그 신학과 실천의 나아갈 방향 모색,” 『신학과 실천』 24-1(2010), 310.

가능성과 ‘오류의 교정’ 가능성에 대한 열려있음을 (openness) 제공하는 안전한 장소에서 비롯된다.<sup>55</sup>

##### 2. 듣기 위한 침묵: 애통의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말하고 슬퍼하는 것이 거대 서사에 비추어 볼 때 이해 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말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들리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역시 불안과 절망감을 가질 수 있다.<sup>56</sup> 애통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적인 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공동체 안에서 애통은 침묵과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애통을 실천할 때 듣기의 윤리는 단순히 듣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말하기에 주어지는 권력 관계를 이해하고 애통을 말하는 언어적인 틀 역시 고려 되어야 한다. 즉, 듣기의 윤리는 무엇이 듣는 것을 흐리게 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발언권을 얻는다는 간단한 도식에 도전해야 한다. 거대 서사에서 소외된 이들과 언어의 문제는 발화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허용과 배제의 선택이 개입된 문제임과 동시에 고통을 말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sup>57</sup>

이렇게 소외된 고통의 소리를 듣기 위한 이미지로써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마비되거나 잠재된 많은 고통의 기억들을 불러 일으킨다. 고통의 목소리로 가득하 있는 예레미야애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성서의 책 중에 하나이다. 애가 안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일 될 수 있으나 (애 5:19-22), 반대로 예루살렘의 극심한 고통의 음성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존중의 공간을 허락하면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듣기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권위를 부여하고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하나님 자신을 ‘듣는 자’이자, 고통의 참여자이자, 증언자로 나타내신다. 다시 말해서 침묵하는 하나님은 슬픔의 공간을 만들고, 슬픔을 들음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그 슬픔에 응답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사를 가져 온다.

침묵은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플레밍 러틀리지 (Fleming Rutledge)는 고통을 듣는 이들의 첫번째 규칙이자 최상의 규칙으로 “침묵”을 제시한다.<sup>58</sup> 이 침묵은 고통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자, 고통 당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려는 시도이다.

<sup>55</sup> 김애령, 『듣기의 윤리』, 81.

<sup>56</sup> Ibid., 101.

<sup>57</sup> Ibid., 142.

<sup>58</sup> Rutledge, *The Crucifixion*, 448.



리틀리지는 옴의 친구들이 옴을 위로하러 왔을 때, 침묵함으로 옴과 함께 칠일을 밤낮 침묵 속에 앉아있음을 강조한다 (Job 2:13). 또한 옴의 친구들에 의해 고통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었을 때 옴의 고통은 가중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침묵이 고통을 듣고 고통 받는 이의 애통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임을 보여준다.<sup>59</sup> 샤론 손튼 (Sharon Thornton) 역시 슬퍼하고 분노하는 사람앞에서의 침묵의 공간을 보유 (beholding) 하는 것은 성례전과 같은 행동이라고 언급한다.<sup>60</sup> 손튼이 언급하는 이 공간의 보유는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이며, 고통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는 장소이며, 거대 서사에서 벗어난 반 서사의 경험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적 듣기는 애도의 시작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 사회에서의 애도의 역할과 중요성 까지 확장 된다. 고통을 드러내고 기억하는 공간을 통해 상호참여적인 공동의 목소리가 생성된다. 아이리스 영 (Iris Marion Young)이 주장하듯이 정의와 관련해서 비판적 이론의 규범적 성찰이 고통이나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의 외침을 들을 때 생성 되기 때문이다.<sup>61</sup> 이러한 측면에서 설교자는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침묵하여 들음으로 그리고 참여함으로 설교자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sup>62</sup> 오늘의 강단은 고통의 목소리를 억제하는 체계와 구조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도록 요청 받는다. 성경, 교회, 민족 그룹, 사회기간, 시민 단체 등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설교는 지역 사회 사이의 열린 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sup>63</sup> 듣는 것 자체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듣기 위한 침묵은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일 수 있다. “발화되지않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며, 대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알아 차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sup>64</sup>

또한, 설교에서 애통을 사용할 때, 폭력적 사건에 노출되었던 개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혹은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타인과 나누는 것에 대한 “(불)가능성” 을 인식해야 한다.<sup>65</sup> 왜냐하면 “상흔을 남긴 사건을 온전히 전달한다는 것은 기억의 차원에서도, 언어의 차원에서도, 정치적 심리적 억압의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sup>66</sup> 여기서 고통을 담는 언어로서 애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정서적 실재 때문이다. 고통은 어떤 경험된 사건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차원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자가

<sup>59</sup> Ibid., 각주 154를 참고하라.

<sup>60</sup> Sharon G. Thornton, *Broken Yet Beloved: A Pastoral Theology of the Cross*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2), 204.

<sup>61</sup>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5.

<sup>62</sup> Mary Lin Hudson and Mary Donovan Turner, *Saved from Silence: Finding Women's Voice in Preaching* (St. Louis, MO: Chalice Press, 1999), 15.

<sup>63</sup> Ibid., 135.

<sup>64</sup> William Blaine-Wallace, “The Politics of Tears,” 93.

<sup>65</sup> 김애령은 서사가 공동체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그 정체성을 구성하여 보존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서사가 경험을 생생하게 언어화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할 것 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김애령, 『듣기의 윤리』, 88-89.

<sup>66</sup> Ibid., 94.

대표성을 지니고 고통의 이야기를 증언할 때, 말하는 이의 언어가 들려 지기 위해서 지배적 담론에 그 이야기를 맞추는 시도는—설교에서는 종교적 담화 혹은 신학적 해석 등—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침묵 속에서 소리의 자리를 내어 주는 것 이상의 것이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듣고, 쉽게 평가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물음과 대답을 지속하는 것이다.<sup>67</sup>

### 3. 애통의 자격과 환대: 애통의 상호성에 대한 고찰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 는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는 애도가능성의 차등적 배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sup>68</sup> 또한 버틀러는 차별적인 공적 애도의 선택이 어떻게 공동체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버틀러는 “우리는 어떤 애도 가능한 삶이 확립되고 유지되는 조건에 대해 그리고 어떤 배제의 논리를 통해서 그 조건이 생겨나는 가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9</sup> 아이리스 영 (Iris Marion Young) 은 권리의 문제가 물질적 재화 배분을 넘어 “관계”의 문제로 이야기 할 것을 촉구한다.<sup>70</sup> 즉, 기회라는 것은 분배 정의에 입각하여 물질적 소유물을 갖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애도할 권리의 문제는 기회, 권리, 발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애도를 통해 동등한 발화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동등한 발화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애도를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제약하는 상황과 사회 구조를 평가 하는 것 역시 포함 되어야 한다.<sup>71</sup>

이러한 권리와 기회의 분배에 대한 정의는 개인적 정체성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sup>72</sup> 또한 기회의 분배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배와 억압의 구조를 통해서 부정의를 드러내야 한다. 영은 구조적 불의가 제도적 규칙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행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성되고 재생산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에 기여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고, 그 원인이 복잡하고 다고 규명한다.<sup>73</sup> 그래서 영은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74</sup> 영이 말하는 연대 (solidarity)는 동질성이나 그룹의 통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하기로 결정한 개별적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이다.<sup>75</sup> 이러한 언어의 부정의를 관계 안에서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대의 담론이

<sup>67</sup> Ibid., 263.

<sup>68</sup> Butler, *Precarious Life*, xiv-xv.

<sup>69</sup> Ibid., 38.

<sup>70</sup>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26.

<sup>71</sup> Ibid.

<sup>72</sup> 김애령, 『듣기의 윤리』, 243.

<sup>73</sup> Iris Marion Young,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95.

<sup>74</sup> Ibid., 96.

<sup>75</sup> Ibid., 120.

필요하다. 애통의 필수적 조건으로써 환대를 통해 상호적 응답의 가능성, 헌신, 나아가 책임으로써 우리는 애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sup>76</sup>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동 게스트 (co-guest) 이자 공동 호스트 (co-host) 의 개념으로써 애통의 언어는 공동의 고난자 (co-sufferer) 의 태도를 설교 안으로 불러 와야 한다.<sup>77</sup> 즉 환대의 개념은 모두의 애통이 동등하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설교에서 “상호성”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윌리엄 블레인-월레스 (William Blaine-Wallace)는 이해할 수 없는 통곡의 공동체로부터 공명하는 노래가 나온다고 주장하는데, 그 공동체는 “상처의 상호성 (a mutuality of brokenness)”를 통해 증인과 애통하는 이의 정체성이 구별되지 않는 공동체를 의미한다.<sup>78</sup> 따라서 우리 자신을 트라우마와 상실의 언어에 의해 표현할 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상호성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sup>79</sup>

애통의 언어가 인간의 고통에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 고통의 서사는 거대 서사를 통해서 선별되거나 판단되는 되면 안되고 관계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거대 서사에 의해 고통의 서사가 선별되면 그 경험과 주체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내’가 지닌 독특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인 삶의 궤적이 언어로서 나타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찰스 캠벨 (Charles Campbell)은 교회를 친구 공동체 (A community of friend)로 정의하면서 “상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한다.<sup>80</sup> 캠벨이 주장하는 설교는 “지배와 강압”의 방식으로 선포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한 사랑으로 공동체의 선 (the good of the community)을 추구한다.<sup>81</sup> 동시에 친구 공동체 안에서 설교자는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다른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지 않는다.<sup>82</sup> 친구로서의 사قم은 설교의 참여자들을 온전하고 역동적인 참여로 초대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열려 있으며, 이러한 동등성은 상호 취약성 (vulnerable) 의 특성을 가진다.<sup>83</sup> 나아가, 윤리적 측면에서 타자와의 상호관계적인 삶에 있어서 관계만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제도까지 포함 되어야 한다.<sup>84</sup> 즉 서사의 행위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윤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인 정의로운 제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IV 애통: 남겨진 언어

<sup>76</sup> 김애령, 『듣기의 윤리』, 256.

<sup>77</sup> Choi Hee An, *A Postcolonial Self: Korean Immigrant Theology and Church* (New York: Suny Press, 2015), 140.

<sup>78</sup> Blaine-Wallace, “The Politics of Tears,” 186.

<sup>79</sup> Ibid., 196.

<sup>80</sup> Charles L. Campbell, *The Word before the Powers: An Ethic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59-160.

<sup>81</sup> Ibid., 162.

<sup>82</sup> Ibid., 163.

<sup>83</sup> Ibid., 163.

<sup>84</sup> 김애령, 『듣기의 윤리』, 86.

설교에서 고통을 다루는 것은 만족할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질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투쟁을 중단하지 않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애통의 언어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배적인 서사의 언어였던 승리, 희망, 번영, 심판, 죄, 그리고 인내에 도전하는 다른 방식의 복음의 언어로서 고통 당하는 이들의 언어를 형성한다. 고통 당하는 이들이 승리의 경험, 기적적인 전환의 경험,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할지라도 애통의 언어는 그들의 말하기를 존중하며 말하기의 공간 안에서 상호 취약성의 환대의 장소를 형성해 낼 수 있기에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복음을 담는 필수적 언어로 이해 되어야 한다.

언어는 상실 가능한 것이기에 언어가 공동체에 남겨지고 보존되어 진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고통을 다루는데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유일하고 강력한 언어인 애통은 주어진 고통을 느끼고, 표현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중요한 삶의 부분으로써 공동체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다. 설교자들은 공동체가 상실과 무너짐을 경험할 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남겨지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애통의 언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안에 애통과 연대의 역동성이 풍성하게 실행되도록 의도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sup>85</sup> 이러한 설교자의 노력은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의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힘에 의해서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 질 수 있다.

#### ■ 참고문헌 ■

김명실, “공동체적 탄원기도로서의 통성 기도: 통성 기도의 정체성의 정립과 그 신학과 실천의 나아갈 방향 모색,” 『신학과 실천』 24-1(2010), 299-335.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씨, 2020.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 교회 형성과 종교문화-토착화신학에 대한 역사 신학적 접근,”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8 (2005), 35-70.

이승진, “설교를 통한 신앙 공동체의 집단 기억 형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4-1(2010), 145-175.

윤철호, “구속 교리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1(2012), 131-162.

Blaine-Wallace, William. “The Politics of Tears: Lamentation as Justice Making.” *In Injustice and the Care of Souls: Taking Oppression Seriously in Pastoral Care*. eds. Sheryl A. Kujawa-Holbrook and Karen Brown Montagno, 183-197.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9.

Boyd, Gregory A. “Christus Victor View,” in *The Nature of the Atonement*, eds. James Beilby and Paul R. Eddy, 23-49.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6.

<sup>85</sup> Blaine-Wallace, “The Politics of Tears,” 197.

Brueggemann, Walter. "Shape for Old Testament Theology II: Embracing Pain."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7-3(1985), 395- 415.

\_\_\_\_\_.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7.

Butler, Judith P.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_\_\_\_\_.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New York: Verso, 2004.

Campbell, Charles L. and Johan H. Cilliers, *Preaching Fools: The Gospel as a Rhetoric of Folly*.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2.

Campbell, Charles L. *The Word before the Powers: An Ethic of Preaching*.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Choi, Hee An. *A Postcolonial Self: Korean Immigrant Theology and Church*. New York: Suny Press, 2015.

Davis, Ellen. "Is It Nothing?" A sermon on Lamentations 1:12 and 3:1-8, 16-24 preached in Duke University Chapel on Good Friday, April 18, 2014.

Hudson Mary Lin and Mary Donovan Turner, *Saved from Silence: Finding Women's Voice in Preaching*. St. Louis, MO: Chalice Press, 1999.

Hyde, Lewis. *Trickster Makes This World: Mischief, Myth and Ar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98),

Keller, Timothy.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New York, NY: Penguin Books, 2013.

Kwok Pui-Lan. *Postcolonial Imagination and Feminist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Liotard, Jean-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Middleton, J. Richard and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Powery, Luke A. *Spirit Speech: Lament and Celebration in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Raboteau, Albert. *A Sorrowful Joy*. New York: Paulist, 2002.

Rutledge, Fleming. *The Crucifixion: Understand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Schwartz, Regina M. *The Curse of Cain: The Violent Legacy of Monothe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Seo, Ji-Ma. "Homiletical Theodicy for Preaching on Suffering." *Theology and Praxis* 75 (2021), 53-83.

Spivak, Gayatri Chakravorty.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1990.

Thornton, Sharon G. *Broken Yet Beloved: A Pastoral Theology of the Cross*.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2.

Wilson, Paul Scott.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18.

\_\_\_\_\_. *Preaching and Homiletical Theory*. St. Louis, MO: Chalice Press, 2004.

van Ommen, Armand Léon. *Suffering in Worship: Anglican Liturgy in Relation to Stories of Suffering People*. New York: Routledge, 2011.

Young, Iris Marion.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_\_\_\_\_.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Abstract>

The Importance of Lament and the Ethical Implication of Its Practice in Preaching

Eliana Ah-Rum Ku, Ph.D.

Emmanuel College in the University of Toronto, Homiletics

Since suffering is a part of our lives, it is an essential that is be dealt with in our sermons. The complexity and mystical aspect of suffering pose great challenges for preachers as well as congregations. Although the causes of suffering are complex and cannot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from a single point of view, preachers often approach the causes or interpretations of suffering by reducing them to personal matters or the result of sin. Sometimes, overemphasis on the victory of God conveys the gospel from a closed perspective and over-generalizes multiple and complex life contexts. In this respect, the Christian metanarrative, 'creation-fall-redemption-re-creation,' proclaimed in a linear structure, may run the risk of justifying or downplaying human suffering and brokenness, even though it contains the core of Christian faith. Also, in sermons, the metanarrative can provide a fixed frame, use inadequate language, or apply too narrow a lens for dealing with suffering. In doing so, the metanarrative silences and ignores the experiences that do not fit into it, such as expressing and testifying to suffering.

This study presents a narrative of suffering as a counternarrative to create tension with the metanarrative. This polar concept is examined in Paul Scott Wilson's theological and homiletical grammar, 'Trouble-Grace.' Wilson's notion of polar thoughts helps us to understand how lament can play a role in dealing with suffering as a counternarrative that creates tension and makes a connection between suffering and hope.

This study also focuses on how lament is mutual in preaching. As an ethic in practice, lament in preaching means to listen to the lost voice of suffering that has been silenced and ignored, to express it, and to participate in each other's pain. This study considers the ethics of listening to each other's suffering and hospitality as a way of realizing lament in a community of mutuality without power-rel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lament reveals the relationships of different powers in recounting one's experiences of suffering, and how all experiences and voices of suffering contribute to building a community that can be recognized as part of the faith and the Christian narrative.

Key Words: Lament, Hospitality, Ethics of Listening, Bifocal-Narrative, Trouble and Grace

## “설교에서 애통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논찬

조지훈 (한세대, 설교학)

### 1. 논문의 내용

고통이 인간 삶에 존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그동안 설교자들로부터 외면되어왔다. ‘창조-타락-구원-재창조’로 구성된 기독교의 거대 서사 속에서 고통의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 거대 서사에서 하나님은 창조자, 전사, 심판자, 영웅 등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통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되곤 했다. 이에 더해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 역시 설교자들이 고통의 문제를 꺼리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발제자는 설교에서 ‘애통’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발제자는 승리자의 초점을 강요하는 거대 담론을 거부하고 고통당하며 외면당하는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중 초점 서사(Bifocal narrative)를 제안한다. 이중 초점 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모두 아우르는 서사이다. 즉, 현재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서사이다.

발제자는 거대 서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 서사의 하나로 ‘애통’의 서사를 제시한다. 애통의 서사는 세상 가운데 침묵을 강요당했던 목소리들이 들려지게 하고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서사이다. 애통의 서사는 거대 서사와 반 서사를 연결하는 서사이며 거대 서사와 반 서사의 경계를 넘어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게 한다. 폴 스킷 윌슨의 설교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애통의 서사는 거대 서사와 반 서사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애통의 서사는 문제와 은혜를 동시에 품어내는 서사인 것이다.

### 2. 논문의 기여

본 논문은 거대 서사 속에서 자칫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주변인들의 목소리와 고통의 문제를 설교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설교자들이 승리의 노래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논문의 학문적 기여라고 생각된다. 귀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기여를 해준 발제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3.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제안

a. 본 논문은 발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짧은 지면에 학위 논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려고 해서인지 내용 면에서 너무 많은 비약이 발견된다.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b. 논문은 저자와 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한다.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논문은 저자 중심이 아니라 독자 중심의 글이 되어야 한다. 독자에 의해 이해되지 못하는 논문은 논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즉, 저자의 생각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논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 논문은 심각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영어 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논문에 비문이 너무 많고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한글 문법에도 맞지 않는 문장이 너무 많다. 오타와 탈자도 많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발제자의 학문적 깊이를 논하기에 앞서 논문을 작성한 발제자의 성실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 4. 질문

a. 논문 중간에 예레미야 애가가 등장하는데 애가가 인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본 논문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b. 논찬자는 발제자가 제시한 애통의 문제를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면서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애통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발제자가 말하는 애통의 언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c. 발제자가 이 논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준다면?

## ‘설교에서 애통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논찬

류원렬(평택대/설교학)

“설교자는 눈물과 애통으로 거대서사와 반서사의 역동성을 창조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삶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미래에 대한 확인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이 신과 인간의 애통을 통해 거대서사와 반서사가 역동하는 불안한 공간(unsettling space)에 들어갈 때 현재의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다.”

구아름 박사의 논문은 설교자가 고통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인간 실존의 삶에 항존하는 고통과 고난, 애통의 이슈들을 설교를 통해서 표현하고, 실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설교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희망, 구원, 축복, 은혜의 개념뿐만 아니라, 신비에 둘러싸여있는 인간의 고통 문제를 설교(자)는 외면하지 말아야하고, 미래의 구원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다. 논문의 전체적인 주장과 논조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보편교회의 신학적, 설교학적 입장에 성찰과 울림을 주는 메시지이며, 모든 설교자들을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귀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논찬자는 연구자의 고민, 성찰,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토론을 위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로, 서두의 인용이 연구자의 기본적인 주장인데, 거대서사(창조-타락-구속-재창조)에는 인간의 고통과 애통이 누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연구자는 거대서사와 고통/애통의 서사를 반서사로 표현하면서, 마치 이 두 서사가 이분법적으로 대립된 개념으로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거대서사의 신학적 담론에서의 대표적인 네 단어에 고통/애통의 용어가 없다고, 애통의 실존적인 삶이 meta-narrative와는 구별된 이중서사/이중초점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둘째로, 설교에서의 애통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설교에서 애통을 설교해야한다는 것인지, 애통하고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청하고 환대하는 이야기들을 설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게 다가왔다. 그렇다면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설교란 인간의 삶의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을, 특별히 고통과 애통을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하는가? 설교란 인간의 실존과 정황 속에 선포되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의 고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인가?

셋째로, “애통이 반드시 예배의 한 부분이어야 하지만.”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의미인가? 왜, 어떤 방식으로 애통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설교에서 애통/고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청중에 대한 경청과 환대는 목회적으로, 설교적으로 늘 다루는 문제인데, 실제 설교 작성의 구조와 전달 면에서 어떤 구체적 실천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령,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의 문제/은혜의 도식에서 문제 부분에서 고통을 다루면 되는 것인지? 그럼 윌슨의 trouble/God's action 구조는 기독교적 meta-narrative와는 다른 counter-narrative(반서

사) 구조인가?

변영신학과 소비문화 지상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설교자들에게 구아름 박사는 설교에 있어서 고통과 애통의 이슈를 제기하였고, 이는 무엇보다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소중한 논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과 도전이 되었다. 귀한 논문을 소개해주신 구아름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과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

이상규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실천신학/설교학

## ■ 초 록 ■

본 논문은 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부정신학의 설교적 전용에 관한 것이다. 위-디오니시우스는 부정신학의 체계를 확립한 부정신학의 선구자로서 그는 부정의 방식(*via negativa*)과 긍정의 방식(*via positiva*)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형용 불가능성(*divine ineffability*)과 형용 가능성(*effability*)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런 역설적 특징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빌려온 그의 핵심적 사상인 “발현과 회귀”에 근거해 있는데 이 사상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을 드러낸 성육신(*kenosis*)과 하나님과의 연합과 거룩해짐을 의미하는 신성화(*theosis*)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신학적 패턴으로 표출된다. 이 신학적 패턴은 성육신이 인간을 신성화로 이끌고 인간의 신성화는 자기 비움의 사랑을 구현하는 상호관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는 이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설교이다. 우선, 본 논문은 성육신을 “동일화”라는 개념으로 전용하여 동일화를 성육신의 설교학적 수행으로 이해한다. 이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는 청중들의 신성화를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동일화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는 설교자가 청중들의 실존적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행위와 그 실존적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선포를 핵심적인 요소로 가진다.

주제어: 위-디오니시우스, 부정신학, 상징, 성육신, 동일화, 신성화

## I. 들어가는 말

설교학은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 부정신학은 설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완전한 이해를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며 설교의 내용이 원리(formula)로 환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 신비한 사랑만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벰전1:4)시키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신성화(*theosis*)로 이끈다. 부정신학은 역사적으로 신학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였지만 이것이 설교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크게 없는 듯하다. 에크하르트(Eckhart)와 같은 중세 신비주의자의 설교에서 부정신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부정신학과의 뚜렷한 접촉점을 가지지 못한 채 지내 온 개신교의 설교는 예수님을 집어삼킬 만한 말씀에 대한 지나친 열정(요2:17)에 도취 되어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 개념과 행해야 할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설교는 부정신학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부정신학의 설교적 전용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부정신학의 특징들과 신학의 패턴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설교에 적용할 수

있을지 탐험한다. 우선, 논문은 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이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묘사한다는 사실과 이 역설적 묘사는 그가 신플라톤주의에서 빌려온 발현(*procession*)과 회귀(*return*)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이 개념은 탈신성화(성육신, *kenosis*)와 신성화(거룩해짐 또는 하나님과의 연합, *theosis*)가 상호작용하는 신학적 패턴으로 발전하며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시 동일화(*identification*)와 신성화(*deification*)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부정의 방식의 설교로 전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신성화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 목적은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논문은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를 위한 두 가지 설교학적 실행 방안이 있음을 논하게 될 것이다.

## II. 위-디오니시우스 부정신학의 역설적 특성

### 1. 위-디오니시우스: 인물과 저서들

위-디오니시우스<sup>1)</sup>는 서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살았던 시리아의 신학자 또는 영성가이다. 그는 바울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Dionysius the Areopagite - 행17:34)”라는 필명(Pseudonym) 아래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왔던 신비한 인물이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디오니시우스를 실제 사도 바울의 제자로 인식하여 그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였고 그의 저작물들은 중세시대의 신학과 영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휴고 코흐(Hugo Koch)와 조셉 스티글마이어(Josef Stiglmayr) 같은 학자들은 디오니시우스가 프로클루스(Proclus, 412-485 C.E.)의 신플로톤주의 사상과 기독교 신학을 조화시킨 서기 6세기 전후 시리아의 신학자 또는 영성가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2)</sup>

그의 현존하는 저작물들은 네 권의 논문 - 『신의 이름들』(*The Divine Names*), 『신비신학』(*The Mystical Theology*), 『천상의 위계』(*The Celestial Hierarchy*), 『교회적 위계』(*The Ecclesiastical Hierarchy*) - 과 열 통의 편지(Letters)이다.<sup>3)</sup> 그 외에도 『신학적 저술』(*Theological Representations*)과 『상징신학』(*The Symbolic Theology*)이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지만, 이 두 권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디오니시우스는 그의 현존하는 작품들 속에서 이 두 작품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거기에서 무엇을 논의하였는지 간단히 소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1) 이후로 “디오니시우스”로 표기함.

2) Ysabel de Andia, “Dionysius the Pseudo-Areopagite,” in *Encyclopedia of Christian Theology* vol. 1, ed. Jean-Yves Lacoste (New York: Routledge, 2005), 439. 데니스 터너(Denys Turner)는 디오니시우스의 사상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의 융합이라고 말한다. Denys Turner, *The Darkness of God: Negativity in Christian Mystic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11-18.

3) 모든 디오니시우스의 작품들은 한글 번역본, 『위-디오니시우스 전집』, 엄성옥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7)를 참고했으며 때때로 영어번역본, Pseudo-Dionysius, *The Complete Works*, trans. Colm Luibheid (Mahwah: Paulist Press, 1987)을 인용한다. 한글 번역본의 경우, 이후로, 저자, 작품의 제목, 페이지만을 밝힌다. 예를 들어,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70. 로 표기하였다. 영문번역서의 경우, 작품의 제목은 약자로 제시하고 장(chapter)의 수와 페이지를 밝혔다. 예를 들어, *the Divine Names* 은 *DN*, *the Mystical Theology* 는 *MT*, *the Celestial Hierarchy* 는 *CH*, *the Ecclesiastical Hierarchy* 는 *EH*, 그리고 *Letters* 는 그 순서에 따라 *EP* 1, 2, 3 ... 10로 표시한다.

## 2. 부정신학의 역설적 특성

### 1) 부정의 방식(*via negativa*)과 하나님에 대한 형용 불능성(*divine ineffability*)

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apophatic theology)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에 대한 형용 불능성(*divine ineffability*)을 주장한다. 디오니시우스에 따르면, 지성적 방식(*intellectual way*)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신의 이름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성적인 과정에 의해서는 무한히 불가해한 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단어로도 모든 통일성의 근원이요 표현할 수 없는 선이시오. 초-실존적인 분 (*supra-existent Being*)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초월하는 정신, 말을 초월하는 말은 직관이나 담화나 이름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sup>4)</sup>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모든 지적 활동의 중단(*the cessation of all intelligent activity*)”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이다.<sup>5)</sup> 이 중단은 부정의 방식(*via negativa*)으로 표출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이 아니다”라는 진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언어에 갇힐 수 없는 초월자이기 때문이다.

부정의 방식은 단지 신과 인간 사이의 좁힐 수 없는 차이를 표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전략이다.<sup>6)</sup> 부정의 방식은 인간의 지성과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지성과 언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에 윌리엄 리오르단 (*William Riordan*)은 부정신학을 “무릎으로 연구하는 학문 (*a science that one studies on one's knees*)”이라고 규정한다.<sup>7)</sup> 부정신학은 우리의 신학이 “지성적 순응의 문제 (*a matter of intellectus conformetur*),” 즉 정보 (*information*)의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 경험을 통한 변화 (*transformation*)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우친다.<sup>8)</sup>

### 2) 긍정의 방식(*via positiva*)과 하나님에 대한 형용 가능성(*divine effability*)

부정신학이 디오니시우스의 대표적인 사상과 방법임이 틀림없지만, 역설적이게도, 긍정신학 (*cataphatic theology*) 또한 그에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디오니시우스는 긍정의 방식 (*via positiva*)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형언 가능성 (*divine effability*)을 역설한다. 이 긍정의 방식 중심에는 상징이 있다. 그는 『신의 이름들』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서적 상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 형상이 없는 초자연적인 단순성이신 분의 다양한 속성을 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상징들이 사용됩니다.”<sup>9)</sup>

그의 현존하지 않는 작품인 『신학적 진술』과 『상징신학』 역시 상징을 통한 긍정의 방식을 다룬다. 현대 독자들은 작품들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의 현존하는 작품들은 현존

4)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70.

5) Ibid., 75.

6) 터너는 이러한 부정의 방식을 “필수적인 무지 (*a kind of required ignorance*)”로 묘사한다. - Turner, *The Darkness of God*, 19

7) William Riordan, *Divine Light: The Theology of Denys the Areopagite*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8), 35.

8) Robin R. Meyers, *The Underground Church: Reclaiming the Subversive Way of Jesus* (San Francisco: Jossey-Bass, 2012), 79.

9)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73-74.

하지 않는 작품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sup>10)</sup> 특히, 그의 아홉 번째 편지는 『상징신학』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나무, 나뭇잎, 꽃, 뿌리, 솟아오르는 샘, 빛의 근원, 그밖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적 묘사들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sup>11)</sup> 그에게 이런 상징들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관상”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sup>12)</sup>

상징을 통한 긍정의 방식은 상징이 지닌 유비(*analogy*)에 근거한다. 디오니시우스는 상징 자체를 유비로 이해하는 듯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유비(*analogies*)에 의해서 우리는 정신의 통찰의 진리, 단순한 하나의 진리를 향해 끌어 올려줍니다.”<sup>13)</sup> 신학에서, 특히 부정신학에서, 형상을 갖지 않는 신적 실체에 관한 표명은 유비 없이 불가능하며 그 실체는 가장 가까운 유사성(*the closest similitude*)을 통해 표명된다.<sup>14)</sup>

### 3) 상징의 역설

이 유비(*analogy*) 또는 유사성(*similarity*)은 비유사성(*dissimilarity*)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의미를 가진다. 유사성은 비유사성을 전제로, 비유사성은 유사성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디오니시우스는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상징을 유사성뿐만 아니라 비유사성과도 연결시키며 모순적인 진술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시며 (*dissimilar*)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다고, 즉 하나님은 모든 것과 다르시다고(*different*) 주장합니다. 한층 더 이상한 것은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단어들은 하나님과 사물의 닮음에 배치(*contradict*)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the very same things*)은 하나님과 유사한(*similar*) 동시에 유사하지 않기(*dissimilar*) 때문입니다.<sup>15)</sup>

이런 이해는 상징이 지닌 “유사한 비유사성(*similar dissimilarity*)”과 “유사하지 않은 유사성(*dissimilar similarity*)”을 드러내는 역설적 진술이다. 이 역설안에서 상징의 유사성은 긍정의 방식을 위한 수단(*vehicle*)으로 사용되고 비유사성은 부정의 방식을 위한 수단이 된다. 상징은 그 유사성으로 인해 초월적인 하나님을 표명하는 중요한 방식이지만 그것의 비유사성으로 다시 부정되어야 하는 다소 말장난(*language play*)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상징의 역설은 하나님의 형용 가능성(*divine effability*)과 형용 불능성(*divine ineffability*), 긍정(*affirmation*)과 부정(*negation*)을 동시에 말하는 수단이 된다.

## III. 부정신학의 신학적 패턴

10)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69, 75, 83, 91, 180 와 위-디오니시우스, 『신비신학』, 215-217 등을 참고하라.

11) 위-디오니시우스, 『편지들』 9, 419-20.

12) Ibid., 418. “우리는 감각적인 상징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비밀들을 관상합니다.”

13)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74. 한글 번역본은 *analogy*를 “유추”로 번역하였지만 필자는 “유비”로 번역하였다.

14) Vladimir L. Kharlamov, *The Beauty of the Unity and the Harmony of the Whole: Concept of Theosis in the Theology of Pseudo-Dionysius the Areopagite*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 2009), 196. 폴 탈리히/ 남성민 역, 『조직신학 1』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21), 222.

15)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181.

## 1. 발현과 회귀

하나님에 대한 디오니시우스의 역설적 이해는 그가 신플라톤주의 사상에서 빌려와 기독교 신학에 접목한 발현(procession)과 회귀(return)라는 그의 핵심적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sup>16)</sup> 우선, 발현(procession)은 그리스어 프루도스(*proodos*, πρόοδος)로 “나아가” 또는 “전진”을 뜻한다. 디오니시우스에게 발현은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 안에 내재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sup>17)</sup> 이 발현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선(the Good)”이나 “빛(the Light)”과 같은 개념으로 표현된다. 발현은 그분의 본질인 “선”을 모든 만물에 펼치시는 것이다.<sup>18)</sup> 리오르단은 이 발현을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에 방출하는 “황홀경적 방사(ecstatic radiation)”라고 말한다.<sup>19)</sup> 디오니시우스에게 발현은 사랑이라는 말에 다 담을 수 없는 일종의 신적 황홀경(ecstasy)의 발로이다.<sup>20)</sup>

이에 반하여, 회귀(return)는 그리스어 에피스토로페(*epistorophē*, ἐπιστροφή)에서 온 말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지닌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것은 발현의 목적이다. “선”과 “빛”의 발현은 그 본질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선은 모든 것을 자체에게 돌아오게 하며, 흠어진 것들을 모읍니다… 만물은 그것들의 목표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sup>21)</sup> 요컨대, 발현은 회귀를 목적으로 하고 회귀는 발현을 전제한다.

이 발현과 회귀는 “하강(descent)과 상승(ascent)”이라는 공간적 은유를 통해 표현된다. 디오니시우스에게 발현은 “가장 존귀한 범주에서 가장 비천한 범주로” 하강하는 것이다.<sup>22)</sup>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초월적 상태에서 인간 이해의 차원으로 내려오신다. 이 하강(발현)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지각시키기 위해 많은 상징을 사용하시고 결국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형언 가능성이 생겨난다. 디오니시우스는 하강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음을 전제하며 “각각의 단계를 내려갈 때마다 계속 증가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3)</sup> 이것은 “상징의 외형을 사용한 하나님의 계시 드러냄(God’s self-disclosure under the veil of earthly symbols)”이다.<sup>24)</sup>

하지만, 이 하강의 증가하는 개념들은 마치 분출한 용암이 분출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굳어지고 그 본질과 달라지는 것처럼 다양화된 상징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sup>25)</sup> 따라서 하강에서 상징을 통한 신인식은 파편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결

16) 플로클루스는 말한다. “모든 영향(effect)은 그 원인(cause) 안에 남아 있고, 그것으로부터 발현되고 그것으로 회귀한다.” Proclus, *The Elements of Theology*, ed. E. R. Dodds(Oxford: Clarendon Press, 1963), 38.

17)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72.

18) Ibid., 103.

19) Riordan, *Divine Light*, 199.

20) Paul Rorem, *Biblical and Liturgical Symbols within the Pseudo-Dionysian Synthesis*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eval Studies, 1984), 137.

21)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107-8.

22) 위-디오니시우스, 『신비신학』, 216.

23) Ibid.

24) Rorem, *Biblical and Liturgical Symbols*, 66.

25) Turner, *The Darkness of God*, 29

국 하강이라는 공간적 은유로 표현되는 발현은 하나님을 형언할 수 있는 수단(vehicle)을 다양하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상징의 외형(유사성)을 통한 형용 가능성은 이런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는 사람들을 회귀로 이끈다.

이에 반해, 회귀는 “상승”의 과정, 즉 “가장 비천한 범주”에서 “가장 존귀한 범주”로 올라가는 것이다. 상승은 진정한 신지식을 향한 고양(uptift)의 여정이며 부정(nagation)을 통한 형언 불능성(ineffability)을 수반한다. “가장 비천한 범주”에서 하나님을 표명하는 데 사용된 다양한 상징의 외형(유사성)은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서 그것의 외형적 지시성(referentiality)을 부정하면서 그 외형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과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조명한다. 이 고양의 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안으로 끌려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형언 불능성(ineffability) 또는 형언 불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상승(회귀)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경험에 빗대어 묘사한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모세는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들로부터 도망쳐서 무지의 신비한 어둠 속에 뛰어들어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질 수 없는 것들 안에” 둘러싸인다.<sup>26)</sup> 이것이 앞에서 말한 “모든 지적 활동의 중단(the cessation of all intelligent activity)”이며 하나님과의 연합(union with God)을 의미한다.<sup>27)</sup> 디오니시우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연합한 회귀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상징을 발현과 회귀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현대의 상징 이해와 일맥상통한다. 폴 리피르(Paul Ricoeur)는 상징에 관한 이론에서 상징은 이중적 의미의 구조(double-meaning structure)로 이루어진 의미론적 실체라고 주장한다. 즉, 상징은 일차적(문자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두 의미 사이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상호작용이 “의미의 잉여(surplus of meaning)”를 낳는다. 여기서 일차적 의미는 “의미의 잉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차적 또는 문자적 의미는 “의미의 잉여”를 낳기 위한 도움닫기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성상(icon)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sup>28)</sup> 리피르에게 의미의 잉여는 “문자적 해석의 잔여물(residue)”이다.<sup>29)</sup>

디오니시우스도 상징이 가진 이중적 의미의 구조를 “상징들의 겉모습(outward face)”과 “상징들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the beauty hidden within the images)”으로 표현하였다. 디오니시우스에게 이 겉모습은 그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디오니시우스는 말한다. “우리는 감각적인 상징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비밀들을 관상합니다.”<sup>30)</sup> 로렘도 상징의 겉모습이 “영적 고양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한다.<sup>31)</sup> 이렇게 상징은 보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실체로 인도한다.

26) 위-디오니시우스, 『신비신학』, 212.

27)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75.

28) Jean-Luc Marion, *God without Being: Hors-Texte*, trans. Thomas A. Carl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18.

29) Paul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rans. David Pellauer (Fort Worth: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54-55.

30) 위-디오니시우스, 『편지 9』, 418.

31) Rorem, *Biblical and Liturgical Symbols*, 55.



## 2. 탈신성화(Kenosis)와 신성화(Theosis)

디오니시우스는 발현을 삼위일체의 분화(differentiation)와도 관련시킨다. 그는 삼위의 신성(Godhead)안에서의 분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발현들과 계시들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sup>32)</sup> 디오니시우스에게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는 분화의 행위(the emptying act of differentiation)”이다.<sup>33)</sup> 이런 자기 비움의 행위(kenosis)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sup>34)</sup> 빌립보서(2:6-11)에 언급된 대로 이런 자기 비움의 행위는 하나님이 신의 속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를 전제하고 있기에 “신성을 벗어버리는 행동,” 즉 “탈신성화(脫神聖化)”이다.<sup>35)</sup> 성육신은 곧 탈신성화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발현이 회귀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발현의 중요한 측면으로서의 탈신성화(성육신)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디오니시우스는 이에 대해 넉넉히 답을 한다. “이런 까닭에 가장 거룩한 계급의 천사들은 거룩한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sup>36)</sup> 성육신은 인간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현과 회귀의 관계처럼, 성육신은 인간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며 인간의 거룩함은 성육신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디오니시우스는 궁극적인 거룩함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 거룩함의 실체를 “그리스도의 지체들,” “하나님과의 영원한 일치,” 그리고 “즐겁고 확고한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sup>37)</sup> 하지만 그는 살아 있는 자들의 거룩함도 인정하며 그 거룩함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며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악에서 완전히 자유하며, 선한 것을 향한 거룩한 열망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거룩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현세에서 내세를 고대합니다. 그들은 정념에서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천사처럼 삽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선을 비롯하여 모든 덕을 실천합니다.<sup>38)</sup>

이런 인간의 거룩함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신화 또는 신성화(theosis, deification 또는 divinization)이다. 이 말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 c. 329-390 C.E.)가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몇몇 교부들이 그들의 작품들 안에서 주요 주제로 다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된 적이 없다.<sup>39)</sup> 이 단어를 처음 정의한 사람이 바로 디오니시우스다. “신화는 가능한 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sup>40)</sup> 발현과 회귀 사이의 상호관계처럼, 탈신성화(kenosis)는 사람들을 신성화(theosis)로

32) 위-디오니시우스, 『신의 이름들』, 87.

33) Ibid., 90, 95.

34) Pseudo-Dionysius, *The Complete Works*, 265. 각주 7번을 보라.

35) 필자는 대구법에 근거하여 이 “탈신성화”라는 단어가 앞으로 보게 될 “신성화”에 상응하는 단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6) 위-디오니시우스, 『교회의 위계』, 347.

37) Ibid., 372.

38) 위-디오니시우스, 『편지 10』, 430-31.

39) Norman Russell, “Deification,” in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ed. Ian A. McFarland et 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132-135.

이끌고 또 신성화(theosis)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비움의 행위(kenosis)를 재연하고 그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벧전1:4)한다. 이렇게 탈신성화와 신성화 사이의 상호작용은 디오니시우스 부정신학의 중요한 패턴이다. 여기서 탈신성화는 신성화를 이끄는 핵심적 동력이다.<sup>41)</sup>

## IV.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 동일화와 신성화 사이의 상호작용

디오니시우스 부정신학의 신학적 패턴인 탈신성화(kenosis)와 신성화(theosis) 사이의 상호작용은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an apophatic way of preaching)를 위한 중요한 내용과 형식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필자는 이 부정신학의 신학적 패턴을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단어의 변환을 시도한다. 즉, 탈신성화(성육신)의 설교학적 전용을 위해 수사학자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의 “동일화(identification)”라는 개념을 설교학적 용어로 빌려 쓰려고 한다.

### 1. 동일화(identification)

동일화는 심리학과 수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사학에서 이 동일화는 화자(話者) 자신을 청취자와 동일시하는 방식의 소통 수단이다. 동일화는 신수사학(The New Rhetoric)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문학 비평가이자 수사학자인 케네스 버크(1897-1993)가 발전시켰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동일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당신은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당신의 말하는 방식을 그 사람의 방식과 동일화하면서 말투, 몸동작, 음색, 어순, 이미지, 자세, 아이디어 등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한에서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sup>42)</sup>

동일화에 대한 버크의 생각은 사람들 사이의 분리(division)를 전제로 한다. 버크는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동일화가 그 “분리에 대한 되갚음(compensatory to division)”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만일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일치(unity)를 주장하는 수사학자들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sup>43)</sup> 하지만 동일화는 단순히 A와 B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한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의 동일화는 “그들이 공유하는 본질들(some principle they share in common)”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sup>44)</sup> 결국 A와 B가 동일하다는 것은 A가 B의 핵심적인 본질을 소유한다는 뜻이다.<sup>45)</sup>

한편, 신학은 인간 사이의 분리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먼저 인식한다. 또한 신학은 그 분리가 하나님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극복된 사건을 핵심 의제(agenda)로 삼는다. 그

40) 위-디오니시우스, 『교회의 위계』, 30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신화(神化)”의 정의는 부재하고 “신성화(神聖化)의 정의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 이후로 필자는 “신화” 대신 “신성화”라는 말을 사용한다.

41) Kharlamov, *The Beauty of the Unity and the Harmony of the Whole*, 217.

42) Kenneth Burke, *A Rhetoric of Mot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0), 55.

43) Ibid., 22.

44) Ibid., 21.

45) Ibid.

행위는 바로 성육신이며 이 성육신은 동일화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다. 설교학자 크레이크 로스칼조(Craig A. Loscalzo)는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성육신은 동일화의 궁극적인 표본이라고 말한다. “마침내, 동일화의 정수는 성육신이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간과 자신을 동일화하였다.”<sup>46)</sup> 그러므로 동일화는 성육신(탈신성화, *kenosis*)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화가 성육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성육신의 본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성육신은 가난과 차별, 그리고 고통의 문제 등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 동문 근방 저택에서 대제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외딴 시골 마을 외양간에서 노숙자의 신세로 태어났다. 만일, 설교가 동일화를 통해 성육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동일화의 대상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그것은 성육신의 의미와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리처드 리셔(Richard Lischer)는 설교에서의 성육신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일을 수행한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물리치기 위해 인간의 고통을 동일시하였다. 설교가 고통에 동참하는 목회적 활동과 분리될 때,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선포는 공허하게 들리고 실제 없는 주석(note)이 된다.<sup>47)</sup>

리셔의 충고는 설교자의 목회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동일화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깨우침을 준다.

설교는 동일화를 통해 성육신을 재연하는 작업이다. 제나 차일더스(Jena Childers)의 말처럼, 설교는 “성육신적 사건(an incarnational event)”이며 또 그것의 “실행(performance)”이다. 실행자(performer)로서의 설교자는 “지속되는 성육신의 복음을 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sup>48)</sup> 우리는 성육신의 표명으로서 동일화가 지닌 두 가지 설교학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일화는 설교의 방식(style)이 된다. 이 동일화는 설교자가 목회 활동을 통해 청중들의 실존적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행위이다. 이런 동일화는 설교자가 설교를 대하는 태도와 설교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둘째, 동일화는 설교의 변치 않는 주제(theme)이다. 이 주제는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행위를 포함한다.<sup>49)</sup>

## 2. 신성화

한편, 신성화(*theosis*)는 탈신성화(*Kenosis*)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의제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신성화는 탈신성화(성육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동일화는 신성화를 불러오고 신성화는 자기 비움의 사랑(고통당하는 이웃과의 동일화

46) Craig A. Loscalzo, *Preaching Sermons That Connect: Effective Communication through Identification*(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55.

47) Richard Lischer, *A Theology of Preaching: The Dynamics of the Gospel*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 35-36.

48) Jena Childers, “Part 6 Preacher. Introduction: Preacher’s Performance,”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214-215.

49) 두 가지 함의와 관련된 것들을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를 시도하면서)을 실천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화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불합리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신성화(神聖化, *theosis*)를 “어떤 대상을 신성한 것으로 되게 함”이라고 정의한다.<sup>50)</sup> 영어사전에서도 신성화(deification)를 “사람이나 사물을 신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1)</sup> 이런 사전적 의미가 신성화에 대해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신성화(*theosis*, deification)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나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2)</sup> 디오니시우스 자신도 이를 분명히 정의했다. “신화는 가능한 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sup>53)</sup> 기독교 신학에서 신성화는 성화(sanctification)와 같은 용어와 관련되며 거룩함(holiness) 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신성화는 “경이로운 상호교환(*admirabile commercium*)과 같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54)</sup>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신성화는 몇몇 교부들이 그들의 작품들 안에서 다룬 주요 주제였다. 그들은 신성화를 탈신성화(성육신)의 결과 또는 그것의 목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리용(Lyon)의 주교였던 이레나우스(Irenaeus, c. 130~202 C.E.)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sup>55)</sup>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 C.E.) 역시 이렇게 묘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6)</sup> 이들에게 신성화는 성육신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며 절대적으로 성육신에 의존해야 하는 현상이다.

신성화는 설교에 관련하여 두 가지 관심을 환기한다. 첫째, 신성화는 설교의 목적에 관한 관심을 환기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설교의 목적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information)를 잘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잘 형성(formation)시키는 것인가? 설교는 그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지성적 순응의 문제 (a matter of *intellectus conformetur*)”인가? 아니면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여 십자가의 삶(*cruciformity* 또는 *imitatio dei*)를 살도록 이끄는 것인가?<sup>57)</sup> 신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

5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신성화,”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51)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s.v. “Deification, n.,” accessed April 1, 2022,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deification>.

52) Russell, “Deification,” 132-35.

53) 위-디오니시우스, 『교회의 위계』, 301.

54) Andrew Louth, “The Place of *Theosis* in Orthodox Theology,” in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Deification in the Christian Tradit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34. 이외에도 루터, 칼빈, 웨슬리 같은 인물들이 신성화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에서 논의되고 있다.

55) Irenaeus, *Adversus Haereses* 5, praef., Louth, “The Place of *Theosis* in Orthodox Theology,” 34에서 재인용.

56) Athanasius, *De Incarnatione* 54, Louth, *ibid.*, 34에서 재인용.

57) Meyers, 79. Cruciformity(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삶)는 바울신학의 관점에서 일종의 신성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Michael J. Gorman, *Inhabiting the Cruciform God: Kenosis, Justification, and Theosis in Paul’s Narrative Soteriology* (Grand Rapid: W. B. Eermans

는 예배 공간에 갇혀 정보를 소통하는 행위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청중들의 삶에서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건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신성화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관한 관심도 환기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신성화(또는 성화나 거룩함)를 설교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직설법(indicative)과 명령법(imperative)을 사용하여 열과 성을 다해 훈계적 설교를 한다. 그러나 그런 설교가 청중들을 변화로 이끌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 훈계적 설교는 자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야 하는 개념과 수행해야 할 율법으로 가르친다. 사람들은 섬을 준다는 주님의 말씀(마11:28)을 믿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섬을 찾아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 교회에 남아 훈계적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목마른 물고기처럼 아이러니한 신앙을 이어가기도 한다. 반면, 부정신학은 신성화의 성취와 관련하여 설교자들에게 조언한다. “청중들의 신성화는 오로지 성육신의 재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처럼 부정의 방식의 설교는 동일화와 신성화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인식하는 설교이다.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공간적 은유인 “하강과 상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학적인 움직임을 표명한다. 부정의 방식의 설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을 선포하여 청중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청중들이 하나님의 형상(image)으로 변화되어 신성화에 이르도록 “영적 고양(spiritual uplift)”을 추구하는 설교이다. 부정의 방식의 설교는 신성화를 설교의 목적으로 삼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동일화의 구현에 힘을 쏟는다.

### 3.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

신성화는 설교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신실한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다.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 1) 청중에 대한 관심

첫째, 청중에 대한 관심이다. 동일화의 구현은 설교자가 청중들의 실존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에 공감하는 적극적 목회 활동과 관련된다. 1970년대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복미의 새로운 설교학(the New Homiletic)은 청중을 설교의 중요한 동반자로 삼았다. “청중으로의 전환(turn to the hearer)”이라는 말은 새로운 설교학을 특징 지우는 중요한 모토(motto)이다.<sup>58)</sup> 청중의 경험이 설교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청중들의 이야기가 설교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sup>59)</sup> 이를 위해 설교학자들은 청중들과의 동일화를 설교를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설교학자가 동일화(identification)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목회적 행위를 설교의 선결과제로 고려되었다.

Pub. Co., 2009), 7.

58) O. Wesley Allen Jr., “Introduction: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in *The Renewed Homiletic*, ed. O. Wesley Allen J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8.

59)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의 귀납적 설교(inductive preaching)와 찰스 라이스(Charles L. Rice)의 이야기 나누기로서의 설교(shared story)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 흑인 설교학의 대가인 헨리 미첼(Henry H. Mitchell)은 그의 책 *The Recovery of Preaching*을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시작한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겔3:15)”<sup>60)</sup> 미첼은 포로가 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켰던 에스겔의 태도가 설교자의 능력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충고한다. 특히 미첼은 감정적 유대(emotional bonding)가 매우 중요한 동일화의 요소라고 말한다.<sup>61)</sup> 또한 크래독은 이 동일화를 공감적 상상력(empathetic imagination)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공감적 상상력이란 한마디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이다.<sup>62)</sup> 설교자가 청중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역지사지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중대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만약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한다면?”<sup>63)</sup> 이런 공감적 상상력에 근거한 설교는 청중들“에게(to)” 설교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을 “위해(for)” 설교할 수 있도록 이끈다.<sup>64)</sup>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이 취하는 동일화의 방식은 인간의 곤경(trouble)에 대한 공감(empathy)이다.<sup>65)</sup> 윌슨에게 있어서 인간의 곤경에 대한 공감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다. 이 동일화는 또한 회중의 필요(congregational need)에 관한 관심으로 표명된다. 윌슨은 회중의 필요를 목회적 활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그 필요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드러내 준다고 주장한다.<sup>66)</sup> 찰스 캠벨(Charles L. Campbell)은 동일화의 방식으로 “탈장소적 주석(dislocated exegesis)”을 추천한다.<sup>67)</sup> 설교를 위해 서재나 도서관이 아니라 청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시장, 응급실, 노숙자 쉼터 등)에서 성서 주석을 하라는 충고이다. 그는 “배움의 장소가 배움의 내용을 형성하며 독서의 장소가 독서의 방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sup>68)</sup> 이처럼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는 청중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실존적 문제를 설교에 끌어들이는 노력이다. 이 노력은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와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참여하는 작업이다. 이 참여 없이 어찌 복음과 부활을 말할 수 있을까. 동일화는 설교를 설교학적 가현설(homiletical Docetism)로부터 구원한다.<sup>69)</sup>

60) Henry H. Mitchell, *The Recovery of Preach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7), 1.

61) Ibid., 34.

62) Fred B. Craddock/ 김영일 역, 『설교: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 방식』 (서울: 컨콜디아사, 1997), 120.

63) Fred B. Craddock, *Preaching*, 25th Anniversary e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97.

64) Thomas G. Long, “Forward to the 25<sup>th</sup> Anniversary Edition,” *ibid.*, 7.

65)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18), 116.

66) 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2<sup>nd</sup> 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7), 91

67) “Preaching Moment 001: Chuck Campbell,” YouTube video, 01:16, “WorkingPreacher,” September 2008, <https://www.youtube.com/watch?v=xv-mrf2ORZw>.

68) Stanley P. Saunders and Charles L. Campbell, *The word on the Street: Performing the Scripture in the Urban Context*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6), 87. 김병석은 치유설교를 위한 수사학적 구조로 “공감”이 가지는 기능에 관해 설명한다. 김병석, “치유설교 구조의 수사학적 양식에 관한 연구,” 『설교 한국』 11(2020), 99-100.

69) Charles L. Rice, “The Preacher’s Story,” in *Preaching the Story*, eds. Edmund A. Steimle, Morris J. Niedenthal, and Charles L. Rice (Philadelphia: Fortress, 1980), 31.

## 2)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행위의 선포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행위를 선포하는 것이다. 동일화는 성서 주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과 구원 행위를 분명히 발견하여 그것을 설교의 구성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동일화는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그의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행위이기도 하다(요11:35-44). 사실, 설교 사건은 필수적으로 성서 주석을 포함하며 설교는 그것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는 성서 주석은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에 쓸모없는 작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행위(동일화)를 드러내지 않는 설교는 청중들의 신성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전하려고 전해지고 기록된 것 아닌가? 찰스 바토우(Charles L. Bartow)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행위(*actio divina*, God’s self-performance)”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sup>70)</sup>

이 작업은 우리를 특정 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도한다. 성육신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행위를 하신다. 하지만 모든 본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행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때로 구원 행위가 아니라 구속(拘束) 행위를 더 자주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이나 탈식민주의적 해석학(postcolonial hermeneutics) 같은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메리 힐커트(Mary Catherine Hilkert)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병환자 시몬(마26:60)과 사마리아 여인(요4:7) 같은 소외된 자들과의 연대하며 종교적 기존 질서에 도전하지 않았는가.<sup>71)</sup> 이런 해석학적 도구는 설교자들이 주석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람들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행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그러한 발견은 설교가 단순한 “본문의 주석(an exposition of the text)”이 아니라 본문의 의도를 완수할 수 있는 “본문의 실행(an execution of the text)”이 되게 한다.<sup>72)</sup>

이런 작업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게 도와주는 설교들이 있다. 그것은 미국 흑인들의 설교(African American Preaching)와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의 설교학이다. 우선, 미국 흑인계 설교는 설교 주석에서부터 설교의 실행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알려진다. 미국 흑인계 설교자들에게 성서는 그것이 “인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sup>73)</sup> 그의 성서 주석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행위들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70) Charles L. Bartow, *God’s Human Speech: A Practical Theology of Proclama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97), 26.

71) Mary Catherine Hilkert, “Preaching the Folly of the Cross,” *Word and World* XIX, no. 1 (Winter 1999), 41.

72) David James Randolph, *The Renewal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97.

73) Dale P. Andrew, “African America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3.

한다. 즉, 본문 보다 본문의 저자, 하나님이 더 중요하며 그들이 본문을 주석하며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이 본문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이다.<sup>74)</sup>

이런 경향은 미국의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난 대로 그들의 억압과 차별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성서의 이집트 노예 생활과 포로기 사건을 자기의 역사와 동일화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발견하는 하나님은 “해방자(liberator)”이며 “친숙한 아버지(intimate Father)”이다.<sup>75)</sup>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과 행하실 일들을 확인하고 안심하기 위해서”이다.<sup>76)</sup> 또한 이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이끈다. 주로 축제(celebration)로 종결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the will of God)을 행하도록 힘을 주어 “행위와 관련된 목적(a behavioral purpose)”을 성취하도록 이끈다.<sup>77)</sup>

윌슨의 설교학도 본문 주석과 설교를 구성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윌슨의 설교학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설교(preaching the gospel)”이다. 즉, 설교의 목적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고 설교의 모든 요소들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는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이 중심이다. 즉,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구원의 행위들을 선포하는 것이다.”<sup>78)</sup> 윌슨에게 가장 중요한 성서 해석학은 “신학적 해석학(theological criticism)”이다. 윌슨에 따르면, 신학적 해석학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삼위일체 중 한 분)이 무엇을 행하는가?” “더 큰 전체 이야기인 본문 배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시킬 거라 말하고 있는가?” 등이다.<sup>79)</sup> 이런 질문들은 설교자들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주석 작업은 설교에서 신학적 움직임, 즉 인간의 곤경(trouble)에서 은혜(grace)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윌슨의 네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그것에 의한 신학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설교의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설교를 통해 청중들은 복음(the gospel)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단순히 청중들의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윌슨은 주장한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일시적인(transitional) 변화가 아니라 획기적인(transformational) 변화이다.”<sup>80)</sup> 윌슨의 설교는 청중들을 “믿음의 삶, 윤리적인 삶,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의 행동”으로 이끈다.<sup>81)</sup>

74) Warren H. Stewart, *Interpreting God’s Word in Black Preaching*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4), 14-15.

75) Ibid., 21.

76) Cleophus James LaRue, *The Heart of Black Preaching*(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0), 69.

77) Henry H. Mitchell, *Celebration and Experience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62-63.

78)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2<sup>nd</sup> ed., 35.

79) Ibid., 8.

80)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24.

81) Paul Scott Wilson, *Setting Words on Fire: Putting God at the Center of the Sermon*

## V. 나가는 말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은 탈신성화(*kenosis*)와 신성화(*theosis*)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신성화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연합에서 자기를 분화(differentiation)시킨 자기 비움의 사랑을 통해 성취된다. 우리는 이런 부정신학의 패턴을 부정의 방식의 설교로 전용할 수 있다. 부정의 방식의 설교는 동일화와 신성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설교이다. 동일화는 청중들의 신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신성화는 동일화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는 핵심적으로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이다.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신 공감(empathy)의 행동과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선포를 포함한다. 이런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끈다.

### ■ 참고문헌 ■

- 김병석. "치유설교 구조의 수사학적 양식에 관한 연구." 『설교 한국』 11(2020), 99-100.  
『위-디오니시우스 전집』,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7.  
폴 킬리히/ 남성민 역. 『조직신학 I』.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21.  
Fred B. Craddock/ 김영일 역. 『설교: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 방식』. 서울: 컨콜디아사, 1997.  
Allen Jr., O. Wesley. "Introduction: The Pillars of the New Homiletic." In *The Renewed Homiletic*. Edited by O. Wesley Allen Jr.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0.  
Andia, Ysabel de. "Dionysius the Pseudo-Areopagite." In *Encyclopedia of Christian Theology*, edited by Jean-Yves Lacoste, 1:439-43. New York: Routledge, 2005.  
Andrew, Dale P. "African America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Bartow, Charles L. *God's Human Speech: A Practical Theology of Proclamation*.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97.  
Burke, Kenneth. *A Rhetoric of Mot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0.  
Childers, Jena. "Part 6 Preacher. Introduction: Preacher's Performance." In *The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213-15.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Craddock, Fred B. *Preaching*, 25th Anniversary ed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10.  
Gorman, Michael J. *Inhabiting the Cruciform God: Kenosis, Justification, and Theosis in Paul's Narrative Soteriology*. Grand Rapid: W. B. Eermans Pub. Co., 2009.  
Hilkert, Mary Catherine. "Preaching the Folly of the Cross." *Word and World* XIX, no. 1 (Winter 1999), 39-48.  
Kharlamov, Vladimir L. *The Beauty of the Unity and the Harmony of the Whole: Concept of Theosis in the Theology of Pseudo-Dionysius the Areopagite*.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 2009.  
LaRue, Cleophus James. *The Heart of Black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81.

- Knox Press, 2000.  
Lischer, Richard. *A Theology of Preaching: The Dynamics of the Gospel*.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  
Loscalzo, Craig A. *Preaching Sermons That Connect: Effective Communication through Identificat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Louth, Andrew. "The Place of *Theosis* in Orthodox Theology." In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Deification in the Christian Tradit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Marion, Jean-Luc. *God without Being: Hors-Texte*. Translated by Thomas A. Carl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Meyers, Robin R. *The Underground Church: Reclaiming the Subversive Way of Jesus*. San Francisco: Jossey-Bass, 2012.  
Mitchell, Henry H. *Celebration and Experience i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_\_\_\_\_. *The Recovery of Preach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7.  
"Preaching Moment 001: Chuck Campbell." YouTube video, 01:16.  
"WorkingPreacher," September 2008.  
<https://www.youtube.com/watch?v=xv-mrf2ORZw>.  
Proclus, *The Elements of Theology*, ed. E. R. Dodds. Oxford: Clarendon Press, 1963.  
Pseudo-Dionysius, *The Complete Works*. Translated by Colm Luibheid. Mahwah: Paulist Press, 1987.  
Randolph, David James. *The Renewal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Rice, Charles. "The Preacher's Story." In *Preaching the Story*, edited by Edmund A. Steimle, Morris J. Niedenthal, and Charles L. Rice, 19-36.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0.  
Ricoeur, Paul. *Interpretation Theory: Discourse and the Surplus of Meaning*. Translated by David Pellauer. Fort Worth: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6.  
Riordan, William. *Divine Light: The Theology of Denys the Areopagite*.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2008.  
Rorem, Paul. *Biblical and Liturgical Symbols within the Pseudo-Dionysian Synthesis*. Toronto: Pontifical Institute of Medieval Studies, 1984.  
Russell, Norman. "Deification." In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Edited by Ian A. McFarland, David A. S. Fergusson, Karen Kilby, and Iain R. Torrance, 132-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Saunders, Stanley P. and Charles L. Campbell. *The word on the Street: Performing the Scripture in the Urban Context*.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6.  
Stewart, Warren H. *Interpreting God's Word in Black Preaching*. Valley Forge: Judson Press, 1984.  
Turner, Denys. *The Darkness of God: Negativity in Christian Mystic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Wilson, Paul Scott. *Setting Words on Fire: Putting God at the Center of the Serm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8.  
\_\_\_\_\_.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18.

## Abstract

Pseudo-Dionysian Apophatic Theology and an Apophatic Way of  
Preaching

Sangkyu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e need for greater attention to an apophatic way of preaching which is derived from Pseudo-Dionysian apophatic theology. Pseudo-Dionysian apophatic theology attempts to understand God in the interplay between affirmation and negation, between effability and ineffability, and between *kenosis* and *theosis*. In particular, the pairing of *kenosis* or self-emptying (as in the divine Incarnation) and *theosis*, or becoming more like God (deification), forms a theological pattern. In this, *kenosis* leads to *theosis*, and *theosis* reflects *kenosis*.

An apophatic way of preaching develops the interplay between *kenosis* and *theosis* into the interplay between identification and deification in preaching, as a means of communicating God's love and transforming the listener into the image of God. That is, apophatic way of preaching suggests that preachers who take the sanctification or the transformation of their listeners(deification) as one of the essential goals of preaching can achieve it, paradoxically, only by empathizing with people's trouble and proclaiming God's kenotic love and God's saving action revealed in the Incarnation.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deification leads in turn to a Christian life that embodies that kenotic love.

Key Words: Pseudo-Dionysius, Apophatic Theology, Symbol, *kenosis*, *theosis*, identification, deification.

##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과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논찬

김용성 (한신대)

1. 이 논문은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과 설교에 대한 접목으로 보인다. 부정신학은 하나님을 인지적으로 파악하고 규정하는 신학과 명제적 설교에서 벗어난다. 청중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연합(신인합일)을 주장하는 신비신학은 설교의 역동적인 면과 행(行)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부정신학이 주장하는 신성화가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디오니시우스의 저작을 중심으로 부정신학의 역설적인 특징과 ‘발현과 회귀, 탈 신성화(동일화)와 신성화’의 상호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부정신학의 역설은 하나님에 대한 형용 불가능성과 형용 가능성을 말한다. 하나님은 언표 불가능하기에 경험만 가능하지만, 유비와 상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신학은 신에 대해 지시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한 경험 혹은 체험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경험과 체험을 상징하는 부정신학의 ‘발현과 회귀, 하강과 상승, 탈 신성화와 신성화’가 펼쳐지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혹은 신앙에 대한 인지적인 지시 혹은 명제들을 넘어서 규정될 수 없는 ‘잉여된 의미’로 관심을 돌릴 것을 말한다. 또한 연구자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신성화로 규정하고, 설교가 청중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할 것을 강조한다.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성화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2. 본 연구는 대부분 설교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하거나 그리스도교적 윤리를 실행하는 지침서에서 벗어나, 체험을 강조하는 설교를 주장하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고 귀하다. 풍성한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우선 논문 내적인 질문으로, 연구자는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는 청중에 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헨리 미첼과 폴 스콧 윌슨, 찰스 캠벨의 학자를 예로 든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캠벨’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물음이 생긴다. 캠벨은 개인의 실존과 정서가 주를 이루는 미국적 설교 상황에 반대하면서 성서의 서사와 공동체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주장했다. 캠벨이 ‘탈장소적 주석’을 추천했다면 개인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표현과 보여지는 것은 같지만 시작이 전혀 다른 학자를 동일성에서 놓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논찬자가 보기에 신학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 신학의 보편성을 강조하면 ‘하나님(신)’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고, 신앙의 특수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연구자는 ‘자기 비움의 사랑 실천’을 위한 성도를 목적으로 부정신학과 설교를 주장한다. 그래서 설교의 의미를 하나님에 대한 정보 전달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 형성 그리고 지성적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다. 보편적인 설교와 신학은 교회 공동체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에 쉽게

보인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인 수는 감소하고 교회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옳은 행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작금의 현실을 초래한 신학적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전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형성하여,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그리스도교를 잘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교를 강조하면서도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정신학과 설교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질문을 해본다.

3. 오늘날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려고 한다. 문제는 어떤 것에 대해 잘 알았다고 해서 어떤 결과나 행위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차이를 간파하고, 인간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실천이성을 보다 상위의 차원으로 여겼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청중에게 신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정 신학적 설교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귀한 논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연구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위-디오니시우스의 부정신학과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논찬

김병석 (송실대)

### I. 부정신학을 통한 설교학적 접근

본 연구는 부정신학을 설교학에 접목하여 설교에 활용하는 양식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부정의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동일화와 신성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동일화는 청중들의 신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신성화는 ‘동일화’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연구자는 설명한다. 그리고 동일화는 성육신을 “동일화”라는 개념 안에서 설교학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부정의 방식으로서의 설교는 청중들의 신성화를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동일화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듯하다.

이에 대한 실천으로서, 설교자는 회중의 실존적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공감의 적용을 통해서 회중의 실존적 삶의 문제에 개입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참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자가 설명하듯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이 동일화를 말할 때 이는 인간의 곤경에 대한 공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자가 결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설교에 있어서 동일화를 구현하는 설교, 즉 ‘공감’ 활용은 설교를 통해 회중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는 것을 가능케 한다.

### II. 논의를 위한 질의

#### 1. 부정신학의 설교학적 접목에 있는 특별함의 근거는 무엇인가?

루돌프 보렌(Rudolf Bohren)은 인간의 설교 접근 불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설교자에 의한 설교 자체에 대한 부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보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설교자는 설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깨질 때에 비로소 설교자의 설교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보렌은 누구도 설교할 수 없고, 설교를 가르칠 수도 없다고도 말한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성령에 의하여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설교 안에 있는 능력 자체가 가진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의 한계를 짐작케 한다. 이것이 설교에 대한 인간 설교자의 부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성에 설교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인간 설교자에게는 설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성령이 설교강단에 활동하시고, 칼 바르트(Karl Barth)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설교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 시도’로서 설교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에 의한 설교의 무능함과 그것을 초월하여 설교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라는 긍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부정신학의 설교학적 접근으로 이 시대 설교강단에 새로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함은 무엇인가? 즉 부정신학의 개념은 인간의 신학함 자체의 현실이자 인간 설교자의 속성 저변에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자가 제시하고 설명하는 ‘동일화’가 ‘공감’의 개념으로 실천되는 것은 신설교학, 혹

은 치유를 위한 설교 개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 2. 부정신학을 통한 설교의 실제에서 ‘동일화,’ ‘공감’ 등 설교자에게 필요한 설교강단의 실제는 어떤 차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드러난 ‘성육신’이 낮아짐이라는 개념에서 ‘동일화’의 의미로, 그리고 더 나아가 회중과의 ‘공감’을 의미 한다면, 실존적인 인간 문제의 접근을 위한 ‘공감’의 실천을 위하여 설교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설교자가 인간의 심리적, 심미적 차원에서 ‘언어 수사적 기술’에 의한 어떤 공감인가? 아니면 설교자가 실제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회중과 함께 호흡하며 경험하는 ‘삶을 통한 공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 연구자가 말하는 공감은 어떤 차원에서 설교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 3. 단순한 복음을 간결하게 말할 수 없는가?

복음은 단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곧 복음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다. 이처럼 설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인데, 부정신학을 견지하는 설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복음의 역사를 언어 수사적인 어떤 신학적 수용으로 설교 언어 복잡성의 원인을 오히려 가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과 믿음은 부정의 방식이든, 정반합의 논리든, 인간의 언어적 수사학으로 해결하거나 언어적 해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 Ⅲ. 나가는 말

본 연구는 부정신학을 설교학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여 신 인식에 대한 부정과 긍정 사이의 상호관계를 발제자의 방식으로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인간이 스스로 인식할 수 없다. 이 말은 자칫 하면 ‘불가지론’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식하여 설교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계시와 그 은혜라는 신비로운 환경에서 설교자는 말씀 해석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강단에 선다. 물론 때에 따라서 인간 설교자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채 인간의 고뇌를 회중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함께 갈구하는 연약한 모습에 놓여 질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언제나 실패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실재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 설교자가 완전히 하나님의 실재를 모두 파악하여 자신감 있게 설교강단에 선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때문에 인간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뿐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불완전성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 설교자가 부정신학의 개념적 시각을 통해 설교로 이끄는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기 비움이라는 ‘성육신’의 개념에서 ‘동일화’와 ‘공감’이라는 설교의 실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오늘날처럼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회중에게 ‘공감’이라는 설교의 실제적 접근을 부정신학으로 풀어낸 연구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중한 연구로 수고하신 연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